

흥국에프엔비, 1분기 잠정 매출 86억·영업익 1억 7천만

- ▶ 전분기 대비 이익 흑자전환 성공... 2017년 1분기와 비슷한 실적 수준 유지
- ▶ 커피·디저트 사업 확대 및 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 기대

<2018-05-08> 카페 종합 솔루션 기업 흥국에프엔비(189980, 대표이사 박철범)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액 86억 원, 영업이익 1억 7천만원, 당기순이익 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손실을 만회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흥국에프엔비 관계자는 “전통적인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실적 정체는 피하지 못했으나, 안정적 매출 기조 유지와 빠르게 이익 회복을 달성한 점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현재 흥국에프엔비는 체계적인 내실 다지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트렌드에 맞는 신메뉴 개발에 집중한 결과, 티베이스, 캡슐커피 및 다양한 디저트 아이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대체식 시장 공략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이익 창출을 통한 실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자료문의 [흥국에프엔비] 경영관리팀 김미정 대리 (070-5083-3502)

[IR큐더스] 이진영 책임 (02-6011-2000(138))